



천적 에이스 “팀을 구하라”

KIA 양현종-NC 해커 시즌 첫 격돌
평균자책점 1·2위...상대팀에 2승
5강·선두 추격...순위싸움 전면엔
수비 관건...마무리 대결도 관심

챔피언스필드가 마운드 빅매치로 뜨거워진다. KIA 에이스 양현종과 NC를 대표하는 해커가 8일 순위 싸움의 전면에서 맞붙는다.

2015시즌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최종 순위는 안갯속에서 가려져 있다. 롯데의 급부상으로 한화·KIA의 라이벌 구도였던 5강 싸움이 3파전이 됐고, 삼성의 선두 질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3.5게임차의 2위 NC에게도 기회는 남아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순위 싸움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펼쳐야 하는 두 팀의 만남, 마운드에서 세계 불는다. 평균자책점 1위 양현종(2.34)·2위 해커(2.92)의 대결이다.

후반기 때서움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양현종은 KIA에서 가장 믿음직한 선발이다. NC에게도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올 시즌에도 4경기에서 2.16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1패를 기록했다.

해커도 소문난 '호랑이 사냥꾼'이다. 해커는 최근 10경기에서 2.32의 평균자책점

으로 7승2패를 기록하며 유희관에 이어 2승 2위(16승)에 올라 있다. KIA전 기록만을 놓고 보면 더 놀랍다.

3차례의 만남에서 2승을 챙긴 해커의 KIA전 평균자책점은 0.46이다. 19.2이닝을 소화하면서 4실점을 했지만 자책점은 1점에 불과하다. 19.2이닝 동안 KIA 타자들은 단 7개의 안타만 뽑아냈다. 사사구는 4개를 얻어냈지만 삼진은 19차례 당했다. 해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방망이였다.

앞선 전적과 기록만으로는 난공불락이다.

선수비 후역습의 전략으로 빈 틈을 파고 들어가야 한다. 지난 주말 난적 삼성과의 승부에서 KIA는 명품 수비진 끝에 1승1패를 주고 받았다. 5일 오준혁·이범호·박찬호가 수비로 임기준을 도우면서 기싸움을 펼쳤다. 공격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발톱을 드러내지 못한 삼성은 오준혁의 투런포에 일격을 당하며 승을 내줬다.

6일은 KIA가 박해민의 초특급 수비에

울었다. 추격 분위기에서 나온 몸을 날린 수비에 KIA는 승리를 내줬다. 주중 롯데와의 경기에서도 2일에는 내야, 3일에는 외야의 수비 실수로 승기를 내줬던 KIA였다.

쑥쑥한 수비로 양현종에 힘을 실어준 뒤 차분하게 해커를 공략해야 한다.

마무리 싸움도 흥미롭다. NC 마무리 임창민이 28차례 승리를 지키며 세이브 1위에 올라 있다. 7위팀 KIA의 소방수 윤석민은 임창민보다 10경기 적은 44경기에 나

와 26차례 뒷문을 틀어막으면서 세이브 2위를 달리고 있다. 윤석민은 최근 팀의 하락세로 등판 기회가 줄어들면서 강제 휴업 날이 많아졌다. 지난 2일 한화 원정에서 2이닝을 소화하며 세이브를 수확했던 윤석민이 1주일 만의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올 시즌 4승9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NC를 상대로 한 주를 시작하는 KIA는 10·11일 잠실에서 두산을 만난 뒤 12·13일 안방에서 LG와 홈경기를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기태 감독의 호랑이 조련 방법

박찬호 타율 2할5푼 넘으면 '상금 100만원'
못 넘으면 '휴식 없는 마무리캠프' 내기 걸어

KIA 내야수 박찬호가 '상금 100만원'과 '캠프 무휴식'의 갈림길에 섰다. 남은 경기는 22경기. '타율 0.250'이 그에게 주어질 미션이다.

삼성과의 원정 경기가 열린 지난 6일 대구구장 덕아웃에서 '호랑이 군단'의 수장 김기태 감독과 막내 박찬호의 협상이 진행됐다. 상황은 이렇다. 김 감독이 "꼬맹이!"라며 라커룸으로 향하던 박찬호를 불러세우면서 대화가 시작됐다. 전날 대타로 교체하던 상황을 설명하던 김 감독은 남은 시즌에 대한 박찬호의 각오를 물었다. 그리고 내기를 제안했다. 이날 경기까지 포함해 남은 23경기의 타율을 놓고 내기를 하자는 것이었다.

"얼마를 칠 수 있겠나"는 김 감독의 질문에 박찬호는 거침없이 "0.270"을 이야기했다. "신중하게 걸어야"는 주문에 잠시 고민을 하던 박찬호는 슬며시 0.240으로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조계현 수석 코치의 타박에 최종 목표는 "0.250"이 됐다.

목표가 정해지자 상과 벌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다.

"2할5푼을 치면 뭘 요구할래?"라는 김 감독의 말에 박찬호의 장고기 시작



됐다. 한참을 망설이던 박찬호가 "내년 시즌 개막전..."이라고 말을 꺼냈다. 그러나 김 감독은 "캠프 중반에 또 아프다고 할 것 아니냐. 내년 시즌은 장담할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다.

다시 고민에 빠진 박찬호를 향해 김 감독이 먼저 "약속을 지키면 시즌 끝나고 재미있게 놀라고 감독이 100만원의 상금을 주겠다"고 언급했다. 감독이 제안한 벌칙은 '캠프 기간 휴식 없이 보내기. 쉬는 날 오전이라도 훈련을 해야 한다'였다.

협상 체결을 앞두고 잠시 손익 계산이 이뤄졌다. "올 시즌 때린 안타가 21개인데..."라며 박찬호는 0.250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를 지켜보던 김 감독은 "세상에 2할5푼을 놓고 내기를 하는 감독이 어디 있느냐"면서 웃었고, 구경꾼 김원섭은 "목표를 이루면 배트 3자루를 주겠다"고 내기를 거들었다.

이렇게 해서 성사된 박찬호와 김 감독의 내기는 수석코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약속 증명'로 문서화됐다.

"나중에 0.250이 될 것 같으면 경기에 빼버리겠다"는 농담을 한 김 감독은 "삼진만 당하지 말고, 밥도 많이 먹고"라는 말로 좌중우돌 커가는 어린 선수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그러나 감독의 바랍과 달리 박찬호는 이날 두 타석에서 안타 없이 삼진 하나만 기록했다. 이제 22경기 남았다. /김여울기자 wool@

프로야구 최다관중 715만 경신 보인다

치열한 5강 싸움에 힘입은 한국프로야구가 역대 최다관중 경신에 도전한다.

2015 KBO리그는 615경기를 소화한 7일 현재 627만2188명의 관중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당 평균 1만198명이 찾았고, 지난달 30일 5년 연속 600만 관중 기록을 세운 KBO는 700만을 넘어 역대 최다 기록을 노린다. 역대 최다 관중은 2012년 작성된 715만6157명이다.

올 시즌 흥행의 중심이 된 한화와 '전국구 구단' 롯데·KIA가 5강 싸움을 전개하면서 남은 시즌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병호(넥센)의 50홈런, 태민(NC) 40홈런-30도루, 나바로(삼성) 100득점-100타점, 아두치(롯데) 30홈런-100타점, '신인왕 후보' 김하성(넥센)의 20홈런-20도루 등 볼거리도 많다.

막내 kt가 가세하면서 새 출발한 올 시즌 KBO는 사상 첫 800만 관중을 노렸다. 10구단 체제 속 팀당 144경기를 치르면서 전체 경기수가 532경기에서 720경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3월28일 개막 이후 4월

105경기 남은 현재 627만명
경기수 늘고 5강 싸움 '한몫'
KIA 홈구장 72만 달성 무난

까지 1만26명의 평균 관중을 보인 프로야구는 5월 평균 관중이 1만2716명으로 26.8% 증가하면서 순항을 했다. 그러나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6월 평균 관중수가 8250명으로 떨어지는 등 약세를 만났다. 주춤했던 흥행은 7월 들어 평균 관중 9329명을 기록한 뒤 8월 1만589명을 넘어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한화가 흥행의 중심에 있다. 올 시즌 한화는 지난해보다 24%나 증가한 57만5936명의 관중을 동원했다. 21차례 매진(1만3000석) 사례를 이루는 등 구단 역대 최다 매진 기록(14)을 이미 넘어섰다. 막내 kt도 신생팀 최다 관중기록(52만8739명)을 갈

아치우는 등 막바지 흥행 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치열한 순위싸움에서 '고춧가루 부대'로 매운 활약을 하며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시즌보다 평균 관중이 늘어난 팀은 한화(24%)와 넥센(2%) 두 팀에 불과하다. 인기구단 롯데와 LG가 예상 밖 부진으로 관중이 19%나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롯데가 5강 판도의 새로운 변수가 되면서 감소세를 반회하고 있다.

한편 KIA는 올 시즌 59경기에 59만8233명의 관중을 불러들였다. 평균 관중이 지난해 1만366명에서 1만139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올 시즌 목표치 내세운 72만 관중 달성은 가능한 전망이다. KIA는 8일 NC와의 2연전을 시작으로 10월3일 두산과의 시즌 최종전까지 13번의 홈경기를 앞두고 있다. 15·16일에는 한화와의 빅매치가 벌어진다. KIA는 남은 13경기에서 12만1767명(평균 관중 9366명)을 불러들이면 목표 관중을 채우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리미어 12 야구대표팀, 고척돔서 평가전

한국 최초의 돔야구장 고척돔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이 훈련을 하고 평가전을 치른다. 고척돔을 처음 사용하는 야구인은 프리미어 12 대표 선수들이다.

KBO 관계자는 7일 "프리미어 12는 돔구장과 개방형 구장 모두에서 열린다. 당장 개막전(11월 8일)이 일본 삿포로돔에서

열린다"라며 "돔구장 적응 훈련을 고척돔에서 하고자 추진 중이다. 평가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대표팀은 6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김인식 감독과 KBO는 한국시리즈에 나서지 않는 선수를 모아 11월 초에 훈련을 시작하고 한국시리즈가 종료되면 평가전을

치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KBO는 11월 3일까지는 한국시리즈를 마치고, 4일 혹은 5일에 고척돔에서 평가전을 치르려 한다.

KBO 관계자는 "고척돔 평가전에 대해 서울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전 상대는 쿠바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멕시코, 미국과 B조에 속했다. 쿠바는 대만, 네덜란드,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이탈리아와 A조를 이뤘다. /연합뉴스